

2023. 4. 12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. 4. 12.(수)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2매

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교통정책과장   | 이 창 석 | 2133-2210 |
| 교통수요관리팀장 | 김 종 민 | 2133-2224 |
| 담 당 자    | 박 진 희 | 2133-2223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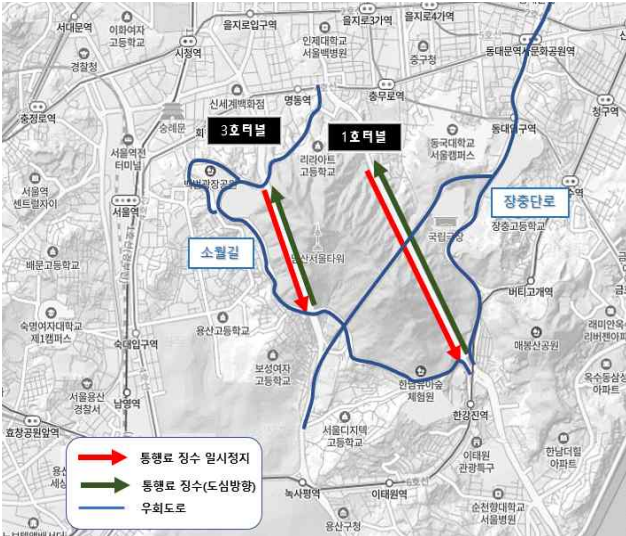
### 서울시, 남산1·3호 터널 양방향 혼잡통행료 면제...4.17(월)~5.16(화)

- 4월 17일(월) ~ 5월 16일(화) : 양방향 모두 면제 실시
  - ※ 3월 17일(금) ~ 4월 16일(일) : 도심방향 징수, 외곽(강남)방향 면제
- 5월 17일(수)부터 징수 재개
- “단계별 현장중심 정책 효과 확인 과정”...교통수요관리 정책 점검·발전 기회

- 서울시가 4월 17일(월)부터 남산1·3호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를 실시한다. 도심방향은 징수하고, 외곽(강남) 방향 징수 면제를 시작한 1단계는 4월 16일(일)까지 운영되며, 2단계 시작인 4월 17(월)부터 한 달간 양방향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.

※ 혼잡통행료 : 2,000원

-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·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, 2개월간 임시로 실시 중에 있다.



<외곽방향 면제, 3.17(금) ~ 5.16(화)>

<양방향 면제, 4.17(월) ~ 5.16(화)>

-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,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,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연말까지 남산1·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.
- 한편 두 달 간의 실험을 마치는 5월 17일(수)부터는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가 다시 재개되는 만큼, 도로 이용 시 면제 날짜를 참고해야한다. 또한 인접 우회 도로인 소월길, 장충단로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(VMS) 등을 통해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.
-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“남산 1·3호터널 및 인근 도로 이용 시 교통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”며 “현장 중심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,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